



The World's Largest Open Access Agricultural & Applied Economics Digital Library

This document is discoverable and free to researchers across the globe due to the work of AgEcon Search.

Help ensure our sustainability.

Give to AgEcon Search

AgEcon Search
<http://ageconsearch.umn.edu>
aesearch@umn.edu

*Papers downloaded from **AgEcon Search** may be used for non-commercial purposes and personal study only. No other use, including posting to another Internet site, is permitted without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owner (not AgEcon Search), or as allowed under the provisions of Fair Use, U.S. Copyright Act, Title 17 U.S.C.*

특집 / 중국의 WTO 가입과 농업전망

중국 채소산업의 실태와 전망

김 병 률* 김 연 중*

Abstract

China's vegetable industry has grown up rapidly due to expanding farmer's production responsibility since "reform and liberalization" policy in 1978 leaded to public and foreign private investments on vegetable seed and production facilities. Low laber costs, diverse climate, and geographical proximity make China export vegetables mainly to Japan and Korea. China's entry into the WTO in the near future entails stronger export-driving policies for China's vegetable industry. It is critical to Korea vegetable industry that improved tariff system, continued and strict monitoring of country-to-origin labeling and phytosanitary system, as well as reduction in production cost and high-quality vegetable production to increase Korea vegetable's competitiveness in foreign markets.

- | | |
|------------------------|-----------------------------|
| 1. 머리말 | 4. 중국의 채소 수출입과 한·중 채소 교역 현황 |
| 2. 중국의 채소 생산 및 유통정책 | 5. 결 론 |
| 3. 중국의 채소 생산·유통 현황과 전망 | |

1. 머리말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한 이후 20년간 연평균 10%에 가까운 경이적

인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대외무역규모는 13.4%씩 성장하였다. 그 중에서도 농업생산력 제고와 수출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외자유치 뿐 아니라 외국의 생산기술과 시설, 우량종자를 도입하여 채소를 비롯한 원예분야에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과 토지가 있고 생

* 부연구위원

산 시설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중국 농산물은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시장과 우리 시장을 계속 잠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WTO 회원국 가입을 앞두고 경쟁력이 있는 채소, 과일, 화훼 등 원예작물에 집중하여 생산정책과 수출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수출하고 있는 일본시장 등 기존의 수출시장까지 잠식하고 있으며, 심지어 우리나라 채소시장도 고추, 마늘 등 중국산 채소 수입 증가로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주요 채소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의 채소 생산, 유통, 소비의 현황을 살펴보고 한·중 채소 수출입 등 중국의 채소 교역과 국제경쟁력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중국의 채소 생산 및 유통정책

중국 정부는 1978년부터 농촌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여 채소를 비롯한 원예작물의 생산구조와 유통구조가 크게 변모하기 시작하였고, 생산이 종래의 통일생산·공급체계에서 영세경영농가를 주체로 한 자유생산·출하체제로 전환하면서 원예 생산이 확대되었다.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채소 등 원예작물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농업정책 기조가 식량생산 위주에서 적지적작 원칙으로 전환함에 따라 각 지역은 곡물 위주에서 채소

등 원예작물 등으로 생산을 다양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최근 녹색, 백색, 청색의 3색혁명이 확대 추진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농림수산업의 종합적 생산능력이 한 단계 향상되었다.

최근 생산정책으로 1998년 중국 농업부에서는 농산물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농산물 품종과 품질 개선 목표를 확정 발표하였다. 즉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농업 구조조정에 역점을 두고 시장수요에 근거한 농산물 품종개량, 품질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1999년에는 채배업 구조조정 4대 원칙을 수립하여 채소, 과일에 대해 품종개량을 통한 품질향상 등으로 생산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2000년에는 농업부에서 채소, 과일 관련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중국 농업부는 채소와 과일의 생산현황 및 시장수요에 근거하여 금후 3년 동안 총체적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채소유통정책으로 1988년에 농업부에서는 대도시에 채소를 비롯한 부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산지육성 사업으로 ‘채람자(菜籃子) 프로젝트’(채소바구니정책 혹은 소비자 쇼핑프로젝트, 부식품 공급프로젝트)를 시작하여 각지에 생산기지와 유통기지를 건설하였다. 채람자 프로젝트는 채소 등 부식품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고 공급을 원활히 하여 전국적인 부식품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중국의 농업부에서 실시하였다.

이 정책의 추진으로 채소 공급이 증가하여 중국 부식품의 장기적인 부족국면이 해

소되고 가격안정, 품종 다양화, 품질 향상을 도모하게 되었다. 일부 채소 주산지에서는 채소업이 농업의 기초산업으로 부상하였으며 일부 지역의 경제에 지주산업이 되고 농민들의 소득 증가에 주요 원천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중국은 1995년도에 전국을 대상으로 각 지역간 채소의 운송체계를 전문적으로 조절하여 원활한 시장공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中央副食品危險基金」을 설치, 운용하였다. 이 기금의 유용한 활용을 위해 국내무역부에서는 북경, 심양을 시험 거점으로 결정하고 생산, 판매구역의 국유 채소회사를 조직하여 기타 지역과 채소운송을 진행함으로써 비교적 양호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명절기간 동안 북경, 심양, 천진, 상해 등의 대도시에 채소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해남성, 광동성, 광주시, 복건성, 운남성, 사천성 등 원격지에서 생산된 다양한 채소 품종과 가격으로 남방의 반계절채소와 과일의 운송 지도조직(성 정부 주축으로 농업, 교통 부문 주관)을 만들어 북방운송작업을 실시하였는 바, 이를 위한 도로, 철도를 '녹색통로'로 지정하였다.

한편 1987년부터 전국 10대 도시 채소유통체제 개혁이 실시되고 있는데 매년 경험교류회의를 개최하여 개혁내용을 보완하고 있다. 1996년 5월에 개최된 제10차 회의에서는 체제 전환과 경제의 고속성장 하에 채소유통체제에 대한 개혁정책 시행이 새로운 모순과 문제에 직면하게 되자 새로운 채소유통체제 개선을 위해 6가지 정책사업

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첫째 생산기지 건설을 강화하여 공급능력을 제고하며, 현대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 보급하고, 채소유통체제를 규모화, 시설화, 고급화한다. 둘째, 생산·판매체제 개혁을 강화하여 시장을 발전시키고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유통형식을 탐색한다. 셋째,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유통질서를 정리하고 상행위를 규범화하여 불법경영으로 소비자를 해치고 시장을 혼란케 하는 범법자를 처벌한다. 넷째, 시장체계 건설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채소유통상품 도매시장을 건설한다. 다섯째, 대·중도시에 대규모 생산·유통체계를 수립하는 동시에 地區간에 협조하여 농업구역과 생산기지를 연합 개발하고 안정된 생산·판매체계를 수립한다. 여섯째, 입법절차를 통해 거시적 조절제도를 완비하고 조절수단과 능력을 부단히 강화한다.

3. 중국의 채소 생산·유통 현황과 전망

3.1. 채소 생산 현황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20여년 동안 채소생산시설과 원예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져 세계 최대의 채소 생산국으로 부상하였다. 1999년 채소 재배면적은 1,335만ha로 1978년 333.1만ha보다 4배나 증가하여 총경지 면적에서 8.5%를 차지하게 되었다(표 1). 한편 전체 채소류 생산량은 1991년 204백

표 1 중국의 식량작물 및 채소 재배면적

단위: 천ha, %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증감률 (98~99)
전체	148,362	149,879	152,381	153,969	155,706	156,373	0.4
식량작물	113,466	110,060	112,548	112,912	113,787	113,161	△ 0.6
그중 쌀	33,064	30,744	31,407	31,765	31,214	31,284	0.2
채소	6,338	9,515	10,491	11,288	12,293	13,347	8.6

자료: 2000 중국농촌통계연감, 중국통계출판사, 2000.11.

만톤에서 1999년 405백만톤으로 10년내 2배 가량 증가하였다.

주요 채소 주산지인 산동, 해남, 광동, 호북, 강소성 5대 산지의 재배면적은 526만ha로 전체의 39.4%를 점유하고 있다. 산동성 채소면적과 생산량은 각각 전국의 11.1%와 15.9%를 점유하고 있으며, 고추를 제외한 모든 주요 채소류의 점유율이 전국 1위이다. 다음이 하북성, 하남성 순으로, 생산량으로 볼 때 전체에서 하북성은 9.1%, 하남성은 9.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채소 전체 재배면적과 생산량 중

배추의 비중이 각각 15.1%, 20.8%로 가장 높고, 고추, 무, 오이, 토마토 등도 중요한 품목이다. 특히 토마토의 경우 방울토마토 뿐만 아니라 일반토마토의 경우도 소비자 선호가 증가하고 있어 생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표 2).

특히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는 세계 최대의 생산국으로서, 고추는 전세계 생산량 1,600만 톤(2000년)의 40%에 해당하는 700만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마늘은 전세계 생산량 960만 톤의 65%인 620만 톤, 양파는 전세계 생산량 4,700만 톤의 26%인

표 2 중국의 주요 채소 재배면적과 생산량

단위: 천ha, 만톤

품목	재배면적			생산량		
	1997	1998	1999	1997	1998	1999
총계	11,425	12,291	13,347 (100)	35,019	38,483	40,526 (100)
배추	1,736	1,830	2,021 (15.1)	7,933	8,071	8,430 (20.8)
무	1,032	1,088	1,128 (8.5)	3,316	3,306	3,736 (9.2)
오이	894	934	1,066 (8.0)	3,222	3,481	3,319 (8.2)
대파	434	442	530 (4.0)	1,418	1,332	1,724 (4.3)
토마토	786	848	931 (7.0)	2,888	3,155	3,353 (8.3)
가지	652	694	689 (5.2)	2,118	2,261	2,215 (5.5)
고추	1,092	1,122	1,251 (9.4)	2,522	2,566	2,715 (6.7)
7품목계	6,626	6,958	7,616 (57.1)	23,417	24,172	25,492 (62.9)

자료: 1998, 1999년도 중국농업통계자료, 중화인민공화국농업부 편, 중국농업출판사, 1999. 11. 2000. 11.

1,200만 톤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 양념채소는 주로 산동, 강서, 안휘성 등에서 생산되며 그 중에서도 우리 나라와 가장 근접하여 농산물 수출의 거점이 되고 있는 산동성은 마늘, 양파 등의 전국 최대 생산지역이다.

한편 중국의 시설채소 재배면적은 1999년 93만ha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2001년에는 100만ha가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유리온실을 포함한 자동화온실은 176.5ha로 우리나라의 10분의 1 정도이며 대부분 단동온실(북부지역의 일광온실, 남부지역의 비닐온실)이다. 시설채소 면적 중에서 산동성의 면적이 47.7만ha로 중국 전체 시설면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세계에 수출하고 있다. 근래에 중국에서 새로운 채소 산지로 부상하는 지역은 운남성이다. 그러나 운남성 성도인 곤명시 주변이 남서부 외진 지역으로 도로 포장상태 등 교통인프라가 아직 미흡하여 생산된 샐러리, 브로콜리 등 채소를 트럭으로 전국에 운송하는 도중 감모가 아주 심하다. 또한 중국은 저온시설 등 수확후 처리시설이 부족한 상태이나 최근 많이 개선되고 있다.

한편 개혁개방 이후 대형의 현대화된 유리온실들이 네덜란드,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등에서 수입되어 설치되어 있지만, 이들의 온실면적은 전체의 0.02%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주요 성, 시 단위로 시범농장 형태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중국은 국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어 채소 품종, 생산, 소비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 동안 채소 증

산을 위해 고독성, 고잔류농약, 불합리한 화학비료 사용으로 채소의 품질이 저하되었고 성장촉진제 남용으로 인해 채소의 영양성분이 부족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최근 '녹색식품'형 저공해, 무공해 채소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중국의 녹색식품은 1990년대 이후 10년도 안되어 10배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1990년 34.7천톤, 1996년 340만톤).

3.2. 채소 유통 현황

채소의 생산 확대와 함께 유통구조도 현저히 변화하였다. 1978년부터 채소 자유시장이 부활되고, 1985년에는 채소유통의 통제 철폐와 가격자유화 실시, 1992년 이후 직접적인 통제관리 폐지, 종래의 국영상업 기구에 의한 통일수매·판매의 통제유통체제가 급속히 해체되고 영세농가를 주체로 한 자유출하·판매의 자유유통체제가 전개되었다.

채소는 일반적으로 생산농민 ⇒ 집출하업자 ⇒ 도매업자 ⇒ 중도매업자 ⇒ 소매업자의 유통경로를 나타내고 있으나 몇 가지 유형화된 경로가 있다. 이에는 소규모 시장 또는 노천 등지에서 농민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직판 경로, 소규모시장 또는 과일가게 등의 소매상인을 거쳐 판매하는 경로, 식품회사나 교역시장을 통해 모여진 물품이 도매상과 소매상을 거쳐 판매되는 경로, 대규모의 물품이 하급단계의 각지 도매시장으로 운송된 후 다시 소매상을 거쳐 판매되는 경로, 그리고 도매상에서 대형유통업체(고급음식업체)를 거쳐 소비자

에게 판매되는 경로들이 있다.

도매시장은 1980년대 후반부터 크게 증가하였으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정부운영 도매시장(국가소유, 성 소유, 구 소유 등)과 민간 도매시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매시장이 우리 나라의 유사도 매시장 또는 지방도시의 소비지 공판장 수준으로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현대적 시장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1995년 현재 전국적으로 각 유형의 도매시장 수가 10여만개 정도 있으며 그 중 농산물 도매시장이 현재 3,500여개, 일상용품·공업품 도매시장이 1천여개, 생산재 도매시장이 3,150여개가 있다. 거래방식은 1대1 상대거래로 현금결제방식을 택하고 있다. 주요 도매시장은 북경시, 상해시, 산동성 수광시, 강소성 소주시 채소권준도매시장, 남환교시장(南環橋市場), 사천성 성도시, 광동성 광동 농산물 도매시장, 심천의 布吉, 남경의 白云亭, 장춘, 장사, 무한 등의 채소도매시장 등이 있다.

自由市場(또는 集貿市場; 集市貿易市場의 약칭)은 중국 농산물 거래의 기초시장으로

서 우리 나라의 재래시장(상설시장, 정기시장)과 유사한 수준이다. 농촌과 도시지역의 자유시장, 즉 농민과 도시상인들이 직접 거래를 행하는 장소이며 定期市場과 非定期市場 2가지 형태가 있다. 그 동안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유통환경이 변하고 있어 시장 통폐합, 시설 정비, 거래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

자유시장은 1978년 33,302개에서 계속 증가하여 1998년까지 89,177개까지 증가하였으나 1999년에 들어 농촌 지역 시장수의 감소로 인해 다소 줄어들어 88,576개이다. 자유시장은 농민과 수공업자간 단순한 상품교환이 주축이던 초급시장 형태에서 상업성을 지닌 유통시장으로 발전하고 있다(표 3). 소매시장 위주에서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의 기능을 가진 종합시장화 방향으로 발전되고, 현지생산·판매 위주의 지역성 시장에서 여러 개의 성, 시 지역을 포괄하는 대규모 시장으로 발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중국의 채소 소매시장은 아직 초보단계로 대부분의 거래량(약 95%)이 도매시장과 집무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중국시민의

표 3 중국의 집무시장 개소수와 거래 현황

	1978	1985	1990	1995	1997	1998	1999
전체 개소수(개)	33,302	61,337	72,579	82,892	87,105	89,177	88,576
1. 도시	-	8,013	13,006	19,892	22,352	24,127	24,983
2. 농촌	33,302	53,324	59,473	63,000	64,753	65,050	63,593
시장 거래액(億元)	126	632	2,168	11,590	17,425	19,836	21,708
1. 도시	-	121	838	6,176	9,469	11,043	12,326
2. 농촌	126	512	1,330	5,414	7,956	8,793	9,382

자료: 「中國農村統計年鑑 1999, 2000」, p.203, p.189.

70% 이상이 채소시장이나 농산물시장에서 채소를 구입하고 있으며, 새벽도매시장에서 15~20%를 구입하고 있다. 슈퍼, 부식 품상점, 농산물도매시장 등에서 채소를 구입하는 시민들은 적은 편이다.

그러나 1996년 소매유통업 개방, 1997년부터 월마트, 마크로 등이 상해, 북경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진입하고 백화점, 슈퍼 마켓이 늘어나 현대적인 소매시장이 급속히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의 경우 한국과 비슷한 시기인 1990년대 중반에 초국적 소매할인업체들이 진입하기 시작하였는데, 가장 먼저 진입한 까르푸가 현재 북경, 상해 등 주요 도시에 18개, 1996년부터 진입한 메트로는 2001년 말까지 20개, 1996년 진출한 월마트는 4개 점포로 시장쟁탈전이 전개되고 있다.

3.3. 채소 소비 동향

중국인들의 식량소비가 양에서 질로 변화되고 있어 육류, 계란, 수산물의 소비가 증가하는 반면, 주곡인 쌀과 밀, 채소의 소비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최근 신선채소 소비는 증가추세에 있다.

1980년대에는 채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적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서

생활 수준 향상으로 채소에 대한 선택 경향이 강해지고 소비수요가 다원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품위 채소, 영양채소, 무공해 채소, 녹색식품 채소, 반계절성 채소, 희귀품종과 야생채소(산나물 등), 건강식품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고급화되고 있다.

3.4. 채소 수급 전망

중국 농업부에서 발행한 「21世紀 中國農業發展戰略」에서 2005~2030년간 중국 채소수요에 대해 전망한 결과, 국민 1인당 평균소득이 5,100元에 이를 때의 채소 소비량은 300kg, 8,000元에 이를 때의 소비량은 354kg 정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로 추산해 보면 중국의 채소 총소비량은 2005년과 2015년에 각각 4억 835만 톤과 5억 1,381만 톤에 이르게 될 것이며, 2030년에는 6억 8,775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표 4).

한편 같은 기간에 채소 생산에 대한 전망 결과, 현재 중국의 채소 생산량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무공해 채소가 채소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가격하락과 판매시장 포화 상태를 초래하고 있다. 향후 과일류와 함께 채소류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으나 채소 생산의 성장을 지

표 4 중국의 채소 수요 전망, 2005~2030

품 목	국민1인당 평균수요량 (kg)				총 수 요 량 (만톤)					
	1998	전 망			1998	전 망				
		2000	2005	2015		2000	2005	2015		
채 소	276.2	283.1	319.5	353.8	429.7	34,473	36,180	40,835	51,381	68,775

자료: 劉 江 主編, “農產品供求總量平衡研究,”「21世紀初中國農業發展戰略」, 中國農業出版社.

표 5 중국의 채소 생산 전망, 2005~2030

단위: 만톤

	1998	전망			
		2000	2005	2015	2030
채소	34,473	35,852	45,364	55,298	74,424

자료: 劉江主編, “農產品供求總量平衡研究”, 「21世紀初中國農業發展戰略」, 中國農業出版社.

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재배면적을 일정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품질을 제고시키며 단위당 생산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채소 생산량은 2005년경에 45,364만톤, 2015년과 2030년경에 이르면 각각 55,298백만톤, 74,424백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공급이 수요를 5천만 톤이나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표 5). 채소는 비교적 노동과 자본이 집약되고 단위당 생산량과 시장 가격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노동자원이 풍부하고 노동원가도 비교적 낮은 중국으로는 과일에 비해 채소 생산에 비교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수출물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4. 중국의 채소 수출입과 한·중 채소 교역 현황

4.1. 중국의 채소 수출입

중국의 농수산물 무역구조를 보면, 수출, 수입 모두에서 축산물과 수산물의 비중이 높으며, 아직은 채소와 과일의 비중이 낮아 이를 두 부류 합계의 수출입 비중이 13~

14%에 머물고 있다. 과거 중국의 농산물 수출은 국내 소비 후 잔여분을 수출하는 형태였으나, 1990년대 후반 들어 국제경쟁력이 있는 과일, 채소 등 원예품목의 수출 촉진을 위해 각 성별로 전략적 생산수출기지를 만들어 앞다투어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수출품목이 비교적 단순하고 물량 공급이 안정적이지 못해 품질개선이나 구조조정 등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에는 농촌공업화로 인한 폐수, 매연, 산업폐기물 등으로 농업환경이 파괴되고, 농산물의 안전이나 위생 등에 대한 표준설정이 미흡하여 수출확대에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대외무역은 개혁개방정책 이후 급증하였다. 중국의 대외무역액은 1980년 381억 달러에서 2000년 4,743억 달러로 20년간 12배나 증가하여 연평균 13.4%씩 성장하였다. 대외무역 중에서 농산물 무역은 같은 기간 동안 3.8배 증가하여 연평균 7.0%씩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농산물 교역증가율이 전체 교역 증가율보다 낮아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농산물 무역 비중은 크게 낮아져, 수출액은 같은 기간에 16.6%에서 5.1%로 하락하고 수입액은 같은 기간에 16%에서 4.2%로 하락하였다.

농산물 수출에서 채소 수출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농산물 수출액에서 채소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4.6%에서 10.6%로 증가하여 농산물 수출을 주도하게 되었다(표 6). 채소 수출액은 1980년 1.4억 달러에서 2000년 15.8억 달러로 20년간 11배나 증가하여 연평균 12.7%나 성장하였다.

표 6 중국의 농산물 수출에서 채소 점유 비율

단위: 100만 달러, 만톤

	식료품 (농산물)	채소류	점유율 (%)	신선 채소	점유율 (%)
1992	105.1	7.9	7.6	2.3	2.2
1993	107.6	9.3	8.7	3.5	3.3
1994	134.2	12.6	9.4	4.2	3.1
1995	137.1	15.7	11.5	4.8	3.5
1996	137.3	15.3	10.7	5.4	7.6
1997	144.4	14.7	9.6	5.4	7.2
1998	133.8	14.7	9.1	5.1	7.7
1999	128.5	14.8	11.5	4.6	3.6
2000	148.5	15.8	10.6	4.9	3.3

- 주: 1) 식료품은 HS 1-4류로 축산물, 식물산품, 동식물유류, 식량, 담배, 술, 가공식품임.
 2) 채소류에는 통조림, 두류, 건고추 등은 미포함.

자료: 중국통계연감, 1999~2000년판

표 7 중국의 채소 수출 동향

단위: 100만 달러, 만톤

	수출액		수출량	
	채소전체	그중 신선채소	채소전체	그중 신선채소
1980	144.3	73.8	-	-
1985	225.7	82.4	51.2	34.1
1990	592.1	172.2	98.0	54.0
1993	931.5	351.4	137.0	84.0
1994	1,257.4	419.6	154.0	86.0
1995	1,571.3	484.2	158.0	81.0
1996	1,534.3	537.4	167.0	95.0
1997	1,474.9	537.4	167.0	93.0
1998	1,472.4	507.0	201.0	117.0
1999	1,477.4	461.2	225.0	130.0
2000	1,576.9	491.6	245.0	139.0

- 주: 채소에 통조림, 두류, 건고추 등은 미포함.
 자료: 중국 대외경제통계대전 1979-91, 중국통계연
 감 각 연도, 월간 "중국해관통계" 2000.12.

또한 채소 중에서 신선채소의 수출은 최근 15년간 4.1배 증가하여 연평균 9.8%씩 증가하였다. 특히 1997~2000년간 신선채소 수출량은 50%나 늘어나 연평균 14.3%로 최근에 올수록 신선채소 수출이 급증하였다(표 7).

채소 수출 상대국도 그동안 변화하여 1980년대까지만 해도 홍콩과 동남아 등지로 주로 수출하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 일본을 비롯해 홍콩, 러시아, 미국 등지로 다변화되었으며 특히 일본으로 수출이 40% 대가 되어 수출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채소수출이 증가한 요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0년대 이후 適地適作 정책 추진으로 농가의 작목 선택이 채소 등 소득작물로 확대되었다.

둘째, 1990년대에 들어와 일본 등 외국으로부터 채소종자를 도입하여 현지화하기 시작하였으며, 채소산지 특히 수출용 채소 재배단지가 동부연안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채소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내의 채소 수출산지간 경쟁이 심화되었다.

셋째, 대외개방정책에 의한 일본, 유럽, 이스라엘, 미국 등 적극적인 외자 도입 확대로 일본 등의 개발수입이 급증하여 이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였다.

넷째, 중국 내부적으로 1990년대에 도로, 항만, 저온관리 물류시스템 등 수출기반시설이 대폭적으로 정비되어 수출물류비가 감소하고 수출채소의 신선도 유지가 가능하였다.

다섯째, 1990년대 채소 재배면적 증가와 단수 증가에 따른 생산증가로 공급과잉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수출여력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신선채소의 수출단가는 하락하게 되었다. 최근 1997~99년간 주요 채소의 수출단가 하락률을 살펴보면, 표고가 -1,416.8%로 15분의 1까지 급락하였으며, 생강이 -115.1%

표 8 중국의 채소 수입 현황

단위: 억US달러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채소	0.25	0.15	0.78	0.77	0.74	0.71	0.83
채소가공품	0.26	0.18	0.18	0.16	0.68	0.24	0.43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 2000.

로 절반 이하로 하락하고, 마늘(-63.6%), 무·당근(-47.8%)도 수출가격이 하락하여 수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강화되었다.

한편 중국이 주로 수입하는 채소는 샐러리, 상추, 부로콜리 등이며 샐러리는 6~11월, 상추는 8~10월경 등 단경기에 수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국내 생산이 늘어나 채소 수입이 감소하였다(표 8). 샐러리를 제외하고는 국내산과 수입산의 질적 차이가 없다. 대부분의 수입채소는 홍콩을 통해 중국 남부지역으로 수입되어 심천, 광주의 도매시장을 통해 전국에 분배되는데 심천은 수입채소의 거점이기도 하다.

4.2. 한·중 채소 교역 현황과 전망

중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액은 2000년 11억달러를 상회하였으나 수입액은 5천9백 만달러에 불과해 무역적자가 심하다. 중국

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산물은 옥수수, 쌀 등 곡물류,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류와 함께, 들깨, 땅콩 등 유지작물, 고사리, 산채 등 건조채소, 인삼 등 약재류이다.

채소류의 경우 대중국 농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당류, 주류, 과자류, 면류 등 가공식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나(표 9),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로 고소득계층이 늘어나 고급농산물 소비가 증가하여 과일, 화훼와 함께 1990년대 후반 들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채소의 경우 대중국 수출액 대부분이 채소종자이며 일반채소는 중국산에 비해 수출가격이 훨씬 비싸 수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나라가 중국에 주로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중국으로부터는 신선농산물이 주로 수입되고 있다(표 10). 물론 수입농산물 중에서 곡물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으나 중국 정부의 수출촉진정책과 저렴한 인건비에 의한 낮은 가격으로 인해 고추, 마늘, 양파 등 최소시장접근 물량을 비롯해 채소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양념채소를 비롯한 채소의 경우 중국의 산동성에 형성된 대규모 채소재배단지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채소재배의 소득 수

표 9 대중국 원예품목 수출 현황

단위: 1,000달러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농산물 전체	44,893	26,964	46,492	39,021	37,854	58,964
채소류	1,132	1,544	2,052	1,168	1,845	3,831
- 채소종자	851	1,131	1,968	1,132	1,690	2,964
과일류	292	570	2,141	1,191	1,123	1,262
화훼류	1	176	9	234	2,291	2,434

주: 농산물 전체에는 축산물과 임산물을 제외한 곡류, 두류, 원예품목, 인삼, 가공식품 등 포함.

자료: 농산물유통공사(www.kati.net).

표 10 대중국 채소 수입 현황

단위: 1,000달러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농산물 전체	412,544	531,558	933,490	621,625	551,618	1,152,039
채소류	49,623	64,735	65,853	60,609	72,086	77,403
- 고추	12,639	19,449	8,551	13,767	10,511	10,367
- 마늘	7,800	8,845	11,618	15,435	15,294	9,106
- 양파	14	1,366	956	430	1,454	1,761
- 당근	1,294	1,921	2,633	1,697	1,577	3,067
- 파	4,692	3,917	5,891	4,881	4,458	4,820

주: 농산물 전체에는 원예품목과 곡류, 두류, 인삼, 버섯, 사료, 당류 등 포함.

자료: 농산물유통공사(www.kati.net)

준이 높아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중국산 채소의 국내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는 당근, 대파 등 신선농산물들이 저온수송되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UR 타결 이후 고추, 마늘 등 양념채소류의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이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심지어 상한양허관세를 부담하더라도 국내 농산물가격이 높아지면 민간 수입업체에 의해 초과수입이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금후

2001년 말 중국이 WTO에 정식 가입하게 되고 중국 정부에서 채소를 비롯한 원예농산물을 수출전략품목으로 적극 육성할 의향을 나타내고 있어 한·중간 채소류의 교역, 특히 중국산 채소의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산 고추, 마늘, 양파의 경우 재배면적 확대 잠재력이 매우 크며 생산성 증대 가능성과 품질 개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품질과 가격 측면 모두에서 국내 양념채소는 중국산에 비해 경쟁

력이 취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 상태의 관세구조와 상한양허관세 하에서도 초과수입과 1차가공을 통한 유사제품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WTO 가입 이후 품질 수준이 더 높아지고 중국내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생산성이 늘어나 수출가격이 하락하는 등 가격경쟁력이 더욱 강화된다면, 국내 양념채소시장은 중국산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며 국내 양념채소산업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양념채소 뿐만 아니라 당근, 파, 무, 배추 등 신선 노지채소 분야도 이미 1977년에 저율관세로 국내시장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국내 및 해상운송에서 저온수송체계가 일반화되고 도로 및 운송수단 등 운송하부구조가 개선되어 물류비용이 절감된다면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중국의 원예작물 재배시설 수준과 재배기술이 현재 우리나라에 비해 저위에 있어 품질이 현저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의 고소득 소비자계층을 겨냥한 시설 채소의 수출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4.3. 중국의 주요 채소 경쟁력 수준

경쟁력은 생산원가 베이스의 경쟁력 등 여러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나 시장에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국제시장에서의 가격과 품질경쟁력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한·중간 채소 도매가격을 직접 비교하여 보면, 중국 채소의 가격경쟁력이 한국에 비해 품목에 따라 2배에서 9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그러나 이와 같은 국가 간 농산물의 생산자가격이나 도매가격을 비교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실제로는 유사 품질의 농산물에 대해 일본 등 국제적인 제3국 대표시장에서의 가격을 비교하거나(국제시장 가격 경쟁력), 우리나라 도매시장에서 중국농산물의 판매원가와 한국산 도매가격을 비교하거나(한국 입장에서 수입대항력), 또는 중국내 시장에서 중국산 농산물과 우리나라 수출농산물 등 외국농산물과의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한국 입장에서의 수출경쟁력).

여기서는 중국산 농산물로 국내에 주로 수입되어 국산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있

는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를 대상으로 중국산 수입원가, 즉 국내 시판가격과 국산품의 도매시장가격과의 비교를 통해 경쟁력을 분석하여 중국 농산물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격경쟁력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마늘의 경우, 중국산 마늘 수출가격이 kg당 450~500원(약 350달러/톤) 수준으로 국내 마늘 생산비, 농가판매가격의 40% 수준, 도매가격의 $\frac{1}{3}$ 수준에 불과하여 가격경쟁력이 높다. 물론 국내판매가격은 CIF 가격에 관세, 통관제비용(48원), 국내운송비(44원), 이윤(관세포함 수입가격의 10%)을 포함해야 한다(표 12).

우리나라는 신선·냉장마늘에 대해서 MMA 초과물량에 대해 상한양허관세를 설정, 운영하였으나, 간마늘, 냉동마늘, 초산조제 마늘에 대해서는 기본관세만 부과하여 이들 형태의 수입이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피해구제조치가 실시되어 2000.6~2002.12월 기간에 긴급관세가 부과된다. 물론 한·중 마늘협상 결과 3년간 TQ방식으로 냉동·초산조제마늘이 매년 2만톤 이상 기본관세로 수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말까지 매년 MMA 물량과 TQ 물량 등 3만여 톤이 의무수입되고 그 이외의 물량은 국내가격 수준이 크

표 11 한·중간 채소 도매가격 비교(2000년초 조사)

단위: 원/kg

	무	배추	양배추	시금치	방울토마토	고추	마늘	양파
중국 (A)	161	86	108	161	750	511	162	202
한국 (B)	516	545	610	1,041	1,583	4,270	1,231	427
B/A	3.2	6.3	5.7	6.5	2.1	8.4	7/6	2.1

자료: 박준근 외, 「중국 농산물 개척을 실태조사 및 정보에 관한 연구」, 2000. 6.

표 12 마늘의 중국산 도입가격과 국내산 가격 비교

단위: 원/600g

		1998	1999	2000
국내가격 (원/kg)	생산비 (A)	1,097	1,279	1,226
	농가판매가격 (B)	2,719	1,520	1,122
	도매가격 (C)	3,097	1,859	1,507
수입가격	신선·냉장 (\$/kg) (원/kg) (D)	0.41 492	0.41 492	0.42 504
	냉동 (\$/kg) (원/kg) (E)	0.49 588	0.41 492	0.65 780
	초산조제 (\$/kg) (원/kg) (F)	0.43 516	0.36 432	0.60 720

주: 1) 생산비는 통계청 농산물 생산비통계 자료

2) 농가판매가격과 도매가격은 농림부 자료

3) 수입단가(US\$/kg)는 CIF 가격(한국무역협회)이며 환산가격은 일률적으로 1,200원/달러 적용

게 상승하지 않는 한 수입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02년까지 구조조정기간을 설정하였으나 주아재배기간 소요, 파종기·수확기 등 생력기계 보급기간 소요 등 사실상 구조조정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산업피해구제조치가 해제되는 2003년 이후가 중요하다.

고추의 경우, 중국에서 수입되어 관세, 이윤, 비용을 포함하여 국내산과 경쟁이 되는 수준의 가격(일반업체의 도입원가로 도

매가격)은 1999년 이후 국산에 비해 10~30% 낮은 수준으로 가격 면에서 중국산이 경쟁력을 갖고 있다(표 13).

고추의 경우 국영무역으로 주로 수입되는 MMA 물량 이외에 민간수입량은 국산 품의 도매가격과 중국산 도입가격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국내산 도매 가격이 중국산 도입원가보다 높을 경우 수입량이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격이 비슷한 경우에도 적지 않은 물량이 수입되고

표 13 고추의 중국산 도입가격과 국내산 가격 비교

단위: 원/600g

		1997	1998	1999	2000
수입품 가격 (A)		4,095	4,516	4,148	4,060
국내산	화건(B)	2,518	3,658	4,548	4,469
	양건(C)	3,363	4,976	5,889	5,346
대비(%)	A/B	162.6	123.5	91.2	90.8
	A/C	121.8	90.8	70.4	75.9

주: 1) 수입품가격 = { (수입단가(CIF) + 관세 + 이윤(관세 포함 가격의 10%) + 부대비용(10.2원) + 운송비(70원) } * 0.72.

2) 국산품 가격은 가락시장 가격(상품)을 월별 수입량 비중으로 가중평균.

자료: 농협중앙회, 중국의 농업동향 및 유통실태, 2001.

있는데, 이는 중국산 고추가 색택이 좋아 품질경쟁력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1999년 이후 중국산 고추의 국내 도매원가는 600g 근당 5,200~5,500원으로 안정적이므로 향후 국내산(양건) 고추 도매가격은 근당 5,500원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즉 근당 5,500원이 국내 고추의 천정가격(ceiling price)으로 작용할 것이다. 양건 가격과 근당 1,000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화건은 근당 4,800원 내외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양파의 경우, 그 동안 품질 면에서 앞선 미국산이 주로 수입되었으나 품질이 크게 개선된 중국산이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국내시장에서 수입품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즉 한국에 양파를 수출하고 있는 주요 국가는 미국과 중국으로 1998년까지는 미국산이 주로 한국에 수입되었으나 최근에는 중국산 양파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1998년에는 미국이 1,000톤 정도를 한국에 수출하였으나 최근에는 중국과 미국이 각각 3,000톤을 수출하고 있다. 2000년 톤당 수출가격(FOB)은 중국이 141달러, 미국이 317달러로 중국산 가격경쟁력이 높다.

2000년에는 신선양파의 국내 수입원가는 미국산의 경우 kg당 1,000원, 중국산은 품질이 다소 떨어지지만 510원 수준이므로 중국산 양파가 향후 수입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표 14).

2000년 3월에 일시적으로 미국산 수입량이 2,190톤으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국내산 수확시기가 늦어지면서 가격이 679원/kg으로 상승한 반면, 미국산은 1999년산 재고 과잉으로 수입원가가 598원/kg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중국산 신선양파의 국내 도입원가(판매단가)와 국산품 도매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국내와 중국의 양파 수급여건에 따라 좌우되지만 일반적으로 중국산 양파의 도입원가가 저렴하여 현재의 고율관세 하에서도 민간에 의한 수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의 양파 재배면적이 확대 추세에 있고 국제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 크며 또한 중국의 양파 재배기술이나 생산성, 품질 수준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중국산의 수출원가가 줄어들 가능성 이 높아 우리 나라로의 수출 가능성은 그 만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의 채소는 수년전까지만 해도

표 14 미국·중국의 대 한국 양파 수출 동향

	미국			중국		
	금액 (천달러)	수출량 (톤)	단가 (달러/톤)	금액 (천달러)	수출량 (톤)	단가 (달러/톤)
1998	485	1,127	430	91	224	406
1999	1,124	2,391	470	512	2,199	233
2000	868	2,741	317	407	2,881	141

자료: KOTIS.

한국의 철학자인 김우중은 “한국인은 혼자만 살고 싶지 않아,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혼자만 살고 싶지 않아,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원인을 잘 설명해주는 말입니다.

百日之後，金主聽了，大怒道：「我這漢人，生在中國，長在中國，吃在中國，睡在中國，連中國的風土都忘記了，如今被你這夷狄所滅，豈不是太可憤了？」說着，便把頭髮拔掉，穿了一件黃色的僧服，說道：「我既然不能保全中國，那就讓中國歸你吧！」

우리나라를 살피면 그들이 살피는 바와는 다른 면이 있다. 그들이 살피는 바는 그들이 살피고자 하는 바이다. 그들이 살피고자 하는 바는 그들이 살피고자 하는 바이다. 그들이 살피고자 하는 바는 그들이 살피고자 하는 바이다.

한국언어학회는 1990년 6월 10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된 제1회 국립현대미술관 국제학술대회에서 「한국현대미술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학제적이고 국제적인 관점에서 미술을 다룬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학술대회에서 제작된 저작물은 「한국현대미술의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이 저작물은 한국현대미술의 전망에 대한 학술적이고 국제적인 관점에서 미술을 다룬 학술대회에서 제작된 저작물입니다.

<표 15> 2016년 예산 확정액과 2015년 예산액 비교

한국의 철학자인 김관수는 『한국철학사』에서 “한국 철학은 그 자체로 독립된 철학으로서는 아니지만, 그 속에 있는 철학적 원리와 철학적 방법은 세계 각국의 철학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였다.

제작자	제작자 명	제작자 주제	제작자 내용	제작자 주제	제작자 명	제작자 주제	제작자 내용	제작자 주제	제작자 명	제작자 주제	제작자 내용
제작자	제작자 명	제작자 주제	제작자 내용	제작자	제작자 명	제작자 주제	제작자 내용	제작자	제작자 명	제작자 주제	제작자 내용
제작자	제작자 명	제작자 주제	제작자 내용	제작자	제작자 명	제작자 주제	제작자 내용	제작자	제작자 명	제작자 주제	제작자 내용
제작자	제작자 명	제작자 주제	제작자 내용	제작자	제작자 명	제작자 주제	제작자 내용	제작자	제작자 명	제작자 주제	제작자 내용
제작자	제작자 명	제작자 주제	제작자 내용	제작자	제작자 명	제작자 주제	제작자 내용	제작자	제작자 명	제작자 주제	제작자 내용

한국 학술지 논문을 위한 원고작성 및 편집기법

품질경쟁력, 기타 경쟁력을 우리 나라 채소와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5. 결 론

이상과 같이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의 추진 이후 국내적으로 농가의 자율생산과 유통을 장려하고 대외적으로 외자와 외국기술, 시설 등을 적극 유치하고 수출드라이브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고추, 마늘, 양파 등 채소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1년 후반 WTO 가입을 앞두고 중국은 채소 등 원예농산물을 금후 상당기간에 국제경쟁력을 갖춘 농산물로 판단하여 수출 촉진을 위한 각종 제도 정비와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가장 가까운 지리적 근접성과 시장성 측면에서 일본과 함께 중국의 주요한 수출대상국이 되어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국내 생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계절관세, 할당관세, 차액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슬라이드관세 등 국제적으로 널리 용인되는 다양한 탄력관세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긴급수입제한조치인 세이프가드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향후 급격한 수입 급증으로 인해 국내 농업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마늘의 경우 MMA 초과물량에 대한 상한양허관세를 신선·냉장마늘에만 한정하여 깐마늘, 냉동마늘, 초산조제마늘 등 1차가공 형태로 50% 및 30%

의 저율관세 수입이 대량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SG를 발동하였으나, 이러한 유형의 유사·대체품 수입은 고추, 양파 등 다른 수입농산물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SG는 국제규범하에 적절히 활용되어야 한다.

둘째, 농산물 수입은 여타 공산품 수입과 달리 국민건강과 직결되어 있어 식품안정성 확보를 위해 철저한 검역 및 제도정비가 요구된다. 특히 검역 및 식품검사제도는 관세화나 관세 인하 추세에 정상시 뿐만 아니라 비상시 국내산업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므로 엄격한 기준 적용을 위한 과학적 장비, 인력 등을 적극 확보해야 한다.

셋째, 현행 원산지표시제를 강화하여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수입농산물이 신선상태 뿐 아니라 박피, 슬라이스, 건조, 냉동 등 1차 가공상태로 수입되어 요식업체나 가공업체 등의 원료농산물로 이용되는 경우가 늘어나므로, 깐마늘, 냉동, 초산조제 마늘, 고춧가루 등 1차가공 형태의 유사·대체품으로 수입된 농산물에 대해 이들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에까지 원산지표시를 확대하여 원산지표시 위반에 의한 부당이득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넷째, 수입에 대한 국내시장 보호도 중요하지만, 중국의 소비계층이 다양하고 소득격차가 크고, 한국산에 대한 고품질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층을 겨냥한 고급 시설원예 품목을 수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상해, 북경,

광주 등 대도시 백화점, 고급레스토랑, 호텔을 대상으로 중국에서 소비가 급증하고 인기 있는 방울토마토 등 과채류의 경우 고품질 생산기술이 요구되는 상품을 수출 할 수 있도록 시장개척이 필요하며, 중국이 미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부로콜리, 셀러리 등 양채류 시장을 우리는 지리적 근접성과 운송비 절감, 신선도 유지 등을 활용하여 진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일본 등 제3국 시장에서 중국산 채소와의 경쟁을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으로는 경쟁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품질고급화, 소비홍보 등으로 시장차별이 필요하다. 장기적 안목에서 수출시장관리를 지속하고 고급기술이 필요한 고급채소의 생산 공급 정책을 추진하여 중국 농산물과의 지속적인 시장차별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적으로는 중국산 채소 수입 확대에 대응하여 파종, 수확 작업기를 집중 개발 보급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고급화에 주력하여 상품차별화를 도모하고, 가격폭등보다 가격폭락에 대비한 가격정책을 추진하여 채소 농가의 생산을 지원 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병률 외. 2001. 4. 「중국의 WTO 가입과 시장개방에 따른 채소·과수·화훼산업 영향과 대응방향」.
- 농수산물 유통공사. 1999. 12. 「국영무역 품목별 수입개방영향 분석」.
- 농수산물 유통공사. 1999. 「중국 농산물무역 핸드북」.

- 농협중앙회 해외협력부. 1994. 11. 「중국의 농업현황과 전망」.
- . "중국의 신선채소 유통발전사(1, 2)." 2000년 3, 4월호.
- 이일영. 1994. 2. 「1980년대 중국의 농업개혁」.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 1998. 11. 30. 중국농정의 최근동향. 농정연구포럼.
- 이정환 등(1998, 1999, 2000). 「농업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영록. 1993. 「중국 수입구조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王志剛·甲斐論. 1999. 11. 中國野菜產地における農家と流通商人の新たな取引關係, 農業經濟論集, 50권2호. 九州農業經濟學會.
- 池上彰影. 2000. '中國のWTO加盟と農業政策の課題', 日本「國際農業協力」, 第23卷1號.
- 盧文 外. 1997. 3. 「中國農村 : 開放与發展」, 中國農業出版社.
- 程國強. "中國農產品貿易 : 格局与政策." 管理世界. 1999年 第3期.
- 程國強, 孫東升. "中國農業政策改革的效應." 經濟研究. 1998年 第4期.
- 朱若峰. 1997. 5. 「中國農業的變革与發展」. 中國統計出版社.
- 中國農業大學經濟管理學院課題組. 1999. 4. "中國農產品貿易政策的選擇." 中國農村觀察.
- 中國統計年鑑 1999, 2000. 中國統計出版社 1999. 9.
- 中國統計摘要. 2000. 5. 中國國家統計局 編. 中國農業統計 등 다수.
- ABARE. 1999. *WTO Agricultural Negotiations: Market Access Issues*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1999), *China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 Economic Balance Sheet*. USA.
- Huang Jikun. 2000. "WTO and China's agriculture (WTO yu zhongguo nongye)," Discussion Paper Series, WP-00-06, Center for Chinese Agricultural Policy at CAAS.